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21~2017.6.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법화경〉 종지는?… "사람이 부처님"

무비 스님의 법화경 법문

여천 무비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8천원





봉은사 〈법화경〉 법문 2년간 엮어
총 28품으로 구성된 귀중한 가르침
불교, 사람, 삶 등 전방위적 해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대강백 무비 스님〈사진〉이 서울 봉은사서 법화경 경전을 교재로 2년간 24회에 걸쳐 법문한 것을 엮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불교란 무엇인가' '법화경이란 무엇인가' 를 비롯해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길' '가장 고귀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 이 다 녹아들어 있다. 그만큼 이 책은 전방위적으로 불교를 해설한 것이다.

무비 스님은 책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상대를 흔쾌히 부처님으로 대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한 번씩 원수로도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기분이 편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항상 밝은 상태가 되면 상대를 늘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 수행법입니다"라며 "상처 안 받고 사는 인생이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으면 더욱 좋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도록 백방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도 천수경도 외우고 관세음보살도 불러 보고 지장보살도 불러 보고 부처님도 불러 봅니다. 방법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진짜 불교를 공부하는 영험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덜 받는 것이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하는 것, 좋은 일이 있어도 도취하지 않고 담담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밝힌다.

무비 스님의 법문은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다. '사람이 부처님' 이라는 법화경 종지를 바탕으로 펼치는 무비 스님의 법문은 불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닥칠 수 있는 문제를 아주 적절히 예로 들어서, 바로 그 자리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인다. 무비 스님이 친절히 일러 준 방편 불교이다. 경전 및 조사들의 어록, 동양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서 빼어난 통찰력으로 적절한 예를 통해 일상의 삶에 치이는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히 뚫어 주는 무비 스님의 법문을 따라가다 보면, 불교를, 사람과 삶을 이해하게 되고, 불교가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배운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운다.

"가장 고귀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에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앉아 있는 법왕루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돌아간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또 행복한 자리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앉는 그 순간입니다. 매순간 내가 앉는 그 자리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자리입니까."

〈묘법연화경〉(약칭 법화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사다르마푼다리카 수트라〉이다. '하얀 연꽃처럼 올바른 가르침' 이란 의미이다. 한역본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축법호가 번역한 〈정법화경〉,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 사나굴다와 달마급다가 공역한 〈첨품법화경〉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구마라집의 〈묘법연화경〉이 명역이라는 평을 받았고, 대승불교권서 〈법화경〉 하면 일반적으로 이 〈묘법연화경〉을 가리킨 말이 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대승불교 최고 경전으로 꼽히는 가운데,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그러므로 누구나 부처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화경〉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제시돼 있고, 절묘한 방편과 비유를 들어 표현하고 있어 문학적인 가치도 높다. 신앙의 경전, 독송의 경전, 찬불(讚佛) 문학의 경전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28품으로 구성된 이 경은 전체가 귀중한 가르침으로 돼 있어서 어느 한 품만을 특별히 다룰 만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크게 14품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제 2 〈방편품〉, 후반부에서는 제 16 〈여래수량품〉을 중요한 품으로 꼽는다. 〈방편품〉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 즉 성문 · 연각 · 보살 삼승이 일불승, 곧 부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깨달음의 여러 경지는 그 구분이 없으며 본질은 하나로서 모두 같다는 것이다. 〈여래수량품〉서는 '구원실성(久遠實成)' 이라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설하는데, 구원실성은 부처님은 이미 성불했다는 뜻이다. 이는 부처님의 열반이 중생을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참된 깨달음은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깨달음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 25품 〈관세음보살보문품〉이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어 특별히 존숭받아 왔고, 제3품 〈비유품〉을 비롯해 '화택의 비유' '계주의 비유' '약초의 비유' '화성의 비유' 등 뛰어난 비유담을 통한 가르침도 높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무비 스님**은?
1958년 출가해 덕흥사, 불국사, 범어사를 거쳐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서 수학했다. 10여 년 선원 생활을 하고 1977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 이후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 문수선원 문수경전연구회서 150여 명의 스님과 250여 명의 재가 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한다. 또한 다음 카페 '염화실' (http://cafe.daum.net/yumhwasil)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 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펼친다. 저서로 〈신금강경 강의〉 〈직지 강설〉(전 2권) 〈대승찬 강설〉 〈사람이 부처님이다〉,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시리즈(전 4권) 등이 있다.

화엄 세계에 들어가면 나와 세상이 바뀐다

원욱 스님의 나를 바꾸는 화엄경

원욱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3천원



〈원욱 스님의 나를 바꾸는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성도 직후 열어 보인 깨달음의 세계와 그 세계로 나아가는 수행법에 관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어 대승경전의 꽃으로 불리는 〈화엄경〉에 대한 본격 해설서이다.

이 책은 서울 목동 반야사서 '화엄경 천일 사경기도' 를 하면서 강의한 강의록과 2016년 BBS 불교방송서 인기리에 방송된 경전강좌 '나를 바꾸는 화엄경'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80권 화엄경(7처 9회 동안 설해진 39품) 전 품을 두루 망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만 가려 뽑아 해설한 내용을 함축해서 담았다. 〈화엄경〉은 불교사상 일체와 인류가 발견한 모든 수행 과정을 총망라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화엄경은 인류가 쌓아올린 지적 유산의 최고봉이요, 수행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화엄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 그 내용이 가장 방대하고, 수많은 사상과 철학 · 학문을 집약하고 있어서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책에서는 〈화엄경〉의 각 품을 설명하면서 부처님 당대의 상황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묘사해 어렵게만 느낀 화엄의 세계로 독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이 책서 원욱 스님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시각서 다채로운 방법으로 화엄경을 해설해 주는 모습이 돋보인다. 홀로그램, 아바타, 텔로미어 등의 용어를 써서 〈화엄경〉을 해설하고, '케빈 베이컨의 법칙' 이나 '코스모스', 인터스텔라, 그래비티 등 다큐와 영화를 넘나들며 화엄의 세계를 열어준다.

원욱 스님은 화엄경이야말로 홀로그램을 이용한 부처님의 최첨단 시청각 교육이라고 역설한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모든 내용을 보살대중들이 삼매에 들어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했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일종의 시청각 수업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보살들이 조교가 되어서 삼매에 들지 못한 보살대중을 위한 2차 수업을 질의문답식으로 진행했다. 마치 부처님 당대로 돌아가 실제 상황 속에서 부처님 설법을 생생히 재현해서 전해 준 원욱 스님의 강의를 엮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화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중생의 안목서 부처님의 안목으로 바꾸는 원욱 스님 덕분에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보현행을 실천해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책의 제목처럼 실제로 원욱 스님의 지도를 받고 마음 깊이 행복해진 불자들, 기부와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반야사 신도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도 신선하게 다가온다.

"20여 년 전 화엄경을 독송하며 암과 싸우던 병든 몸은 화엄의 세계를 만나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내 인생 전부를 바꿔 주었습니다"라는 원욱 스님의 말처럼 인생을 바꾼 화엄경이기에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던 것이다. 화엄경 덕분에 병고서 벗어난 원욱 스님은 철저히 화엄경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서원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스님의 지도를 받은 신도들에게도 삶의 질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스님은 이 책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 중생을 위해 오신 부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아보자,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보현행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고 초지일관 강조한다. 〈원욱 스님의 나를 바꾸는 화엄경〉과 같이 책 제목처럼 이 책은 화엄사상을 토대로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양성의 시대, 글로벌 시대, 정보화시대, 불확실성 시대, 신유목민시대 등등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

BBS 불교방송 경전강좌 내용 정리해 엮어
대승경전의 꽃인 〈화엄경〉 자세히 풀어

세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난무한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사회상 속에서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표출돼 고통 받는 시대이기도 하다. 어떻게 고통서 벗어날 수 있을까?

원욱 스님은 화엄사상의 진수를 '당신은 나의 부처님, 나는 당신의 부처님' 으로 보는 일체유심조임을 일깨운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희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보여주고, 절망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보여준다. 밉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라는 화엄경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을 부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큰 틀이 된다.

원욱 스님은 화엄경의 대의는 "통만법 명일심(通萬法 明一心, 만법을 통하여 일심을 밝히는 것)",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하나, 이 셋은 차별이 없다)"이요, 화엄경의 결론은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현행원이라고 밝힌다. 스님은 화엄경을 통해 마음을 깨닫고 보현행을 실천함으로써 부조리와 불평등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잘 소통하며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김주일 기자

